



Analyst 이동주 · 02-3773-9026 · natelee@skc.co.kr

Issue Comment

- ✓ LG 전자 물적분할 이후 마그나와 JV 설립
- ✓ 인포테인먼트와 램프에 이어 전기차 부품 역량 강화 계기 마련
- ✓ 23년 이후 실적 growth 와 multiple 상향 근거 확보

LG 전자,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JV 설립

- 전일 LG 전자는 전기차 사업 부문 중 '그린 사업' 일부를 물적분할해 '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주식회사' 신설. LG 마그나는 1 조원 규모로 LG 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각각 51%, 49% 출자.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과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면 2021년 7월 1일 분할 예정
- LG 마그나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부문 사업 역량 강화 목적으로 설립. 모터/PE(Power Electronics), 배터리 히터, HPDM(High Power Distribution Module), PRA(Power Relay Assembly), DC 충전박스 및 배터리/배터리팩 부품 관련 사업 영위 예정
- LG 전자에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는 1.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마그나 영업망을 통한 신규 OEM 확보, 2. 마그나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설계 및 검증 분야의 역량과 노하우 흡수 3. 향후 투자에 관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
- LG 전자의 전기차 부품의 경우 GM 향 관련 부품 공급 이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필요했었음. 북미 이외에 메이저로 꼽히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보다는 영업망과 노하우를 갖춘 협력사 확보가 유리
- LG 마그나는 파워트레인에 oriented 된 법인으로 영업뿐 만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영위. 신설 법인 연간 매출액은 2020년 2,500억 원 수준에서 2021년 5,000억 원, 이후 매년 50% 이상씩 성장 전망. 빠르면 2022년 턴어라운드 이후 2023년부터는 6-7% 안정적인 수익성까지 확보
- 인포테인먼트(업계 M/S 1위), 램프(ZKW 인수), 전기차 부품(마그나 JV)로 3 가지 성장축 완성. 이번 JV는 2021년 7월 설립 예정으로 수주를 하더라도 양산에 걸리는 시간이 1-2년으로 본격적으로 손익에 기여할 시점은 2022년. LG 전자 VS 본부 기준으로는 단순 물적분할에 따른 연결로 2021년 하반기 턴어라운드 관점은 유지, 2022년 전기차향 수주 증가 이후 2023년부터 외형 및 수익성은 가파른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가능
- 결국 2023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수주 확보할 수 있는 JV 설립으로 해석 가능. 공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마그나의 OEM 사업에서 LG 전자의 파워트레인(모터, 인버터 등)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예정인 만큼 향후 마그나와 신규 거래선과의 협업에서 동사의 공급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. 이 외에도 인포테인먼트와 램프향으로 제품 라인업 확대 가능성도 염두
- 2021년 기준 PBR 1.2x로 과거 ZKW 인수 효과로 1.4x 까지 Valuation 확장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타겟 멀티플을 최소 1.4x 적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판단. 기업 리포트를 통해 실적 추정치 및 투자의견 재조정 예정

4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